



제목	The Ottoman Endgame: War, Revolution, and the Making of the Modern Middle East, 1908-1923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Penguin Books
발행일	2016. 10. 4.
저자	Sean McMeekin
출판도시	London
페이지수	576
ISBN 또는 ISSN	978-0143109808

내용 요약

『1908~1923년 오스만의 최후의 전쟁: 전쟁, 혁명, 현대 중동의 형성』은 1차 세계 대전과 그 이후 중동에서 형성된 새로운 질서에 관한 역사서이다. 새롭게 개방된 오스만과 러시아의 자료들을 활용한 저자 맥미킨은 인종적-종교적 유혈사태, 제국의 붕괴로 인한 인구의 강제 이동, 이라크와 시리아의 분할 등 현대 중동의 문제를 촉발한 원인들을 추적하였다. 인구의 강제 이동 부분에서 저자는 지적하기를, 19세기 중반 콘스탄티노플의 인구의 대다수가 크리스트교였지만 1893년 오스만 제국 시민의 72%가 이슬람교도였다. 이는 발칸 전쟁으로 인해 수십만 명의 크리스트교도들이 오스만 제국을 떠났고, 1차 세계대전으로 그 이동은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1차 세계대전이 오늘날 중동 문제의 근원임을 인정하였다. 1916년 사이크스피코협정(Sykes-Picot Agreement), 1919년의 베르사유 조약으로 오스만 제국은 해체되었지만 전쟁은 지속되었다. 영국은 이집트, 팔레스타인, 메소포타미아를 얻었고, 프랑스는 시리아, 레바논, 터키의 남부 일부를 장악하였다. 때문에 아타튀르크는 아나톨리아를 장악하려는 전쟁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

책은 총 3부 20개의 장으로 되어 있다. 1부 '유럽의 병자'는 오스만 제국의 허약성, 청년터키당의 출현과 활동에 관한 설명이다. 2부 '1914년의 전쟁'은 오스만의 호전성을 위한 전투, 수에즈, 다르다넬스, 갈리폴리, 아랍인들의 반란 등을 담고 있다. 3부 '죽음과 재탄생'은 중동 지역에서의 오스만의 유산을 설명하였다. 저자의 결론은 오스만 제국의 최후 전쟁을 종결지은 것은 사이크스피코협정이 아니라 청년터키당, 아랍 독립주의자, 유럽의 지도자들이라는 것이다.